

C-4.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(Immediate implants placement)

김진철, 허 익, 박준봉, 권영혁, 이만섭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

연구 배경

치과임플란트는 결손치아를 대체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 이해와 적용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. 이제 보편적인 치과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치과임플란트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의 개선과 함께 심미적인 면의 개선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과거에는 발치한지 최소한 6개월의 치유기간이 경과하여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추천하였다. 그러나, 치아를 발치한 후 1주일에 치조골의 흡수가 시작되어, 3주에 협측 치조골이 상당히 얇아지며, 5-6주일에 완전한 흡수가 일어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렵다.

따라서,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치료기간을 단축하며 치조골의 흡수를 막을수 있다. 환자에게 무치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, 불편감도 최소화할 수 있다. 또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심미적인 보철을 할 수 있다. 이상과 같은 장점으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.

최소의 골소실을 갖는 외상 받은 치아, 광범위한 치아우식, 근관치료를 할 수 없는 치아, 만성치주염이 있는 치아, 1차 창상 폐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건강한 연조직이 있는 경우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.

중례 1.

만성치주염이 있는 상악 4전치 발치 후 #12, #22 즉시 임플란트 식립

중례 2.

치아우식증으로 보철수복이 불가능한 #36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